

사순 제 1주일  
한국교회200주년기념주일

기도서 247 면(A해)  
제1독서 : 창 세 2, 7-9. 3, 1-7  
제2독서 : 로 마 5, 12-17  
복 음 : 마 태 4, 1-11

#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 강론



## 유혹을 멀리하자

서 용 복 신부

오늘 성경에서 처럼 예수께서 당하신 유혹들은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같은 것들이다.

서양 속담에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사다리가 각각 있다>는 말이 있다. 사람마다 각각 어떤 면에 있어서 조금 잘못하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내가 어떤 방면에 약점이 있는가 스스로 살피어 특별히 조심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겠다.

바다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바다에 배를 띄워서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죽을뻔하고 겨우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집이 바로 바닷가에 있었는데 바닷가로 향하는 창문을 모두 막아 버렸다. 그후 한 친구가 와서 묻는 말이 바다의 좋은 경치를 내다볼 수 있는 이 창문들을 왜 이렇게 막았느냐고 물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지난 번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죽을뻔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그 다음부터 다시 배를 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나 이 창문을 그냥 두었다가 바다가 잔잔할 때에 이 창문을 내다보면 내 마음속에 다시 바다로 나갈 생각이 나고 또 배를 탈 생각이 나게 되면 그만 다시 나갔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예 바다가 보이는 창문들을 막아버렸다>고 대답하였다.

사람마다 유혹의 창문이 있다. 이 창문을 내다보면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혹에 빠질런지 알 수 없다. 이 약점 유혹의 창문을 미리 알아서 아예 그 방면을 단단히 막아 버리는 것이 지혜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언제든지 나를 유혹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를 유혹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 하자. 나를 유혹으로 인도하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을 멀리 하자. 나를 유혹으로 인도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멀리 하자. 나를 유혹으로 인도하는 오락이 있다면 그 오락을 멀리 하자. 나를 유혹으로 인도하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을 멀리 하자. 무엇이든지 나를 유혹으로 인도하는 것은 멀리 해야 하겠다.

<여산 전주교회 주임신부>



## 근로자의 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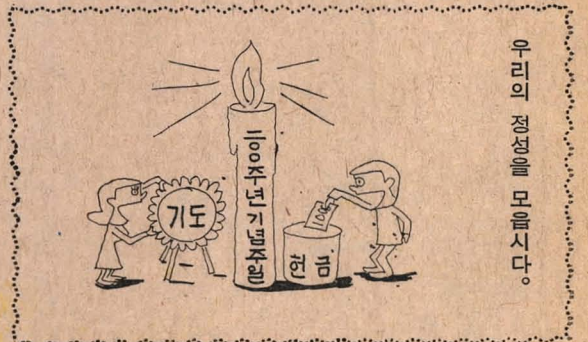
3월 10일은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날」이다. 사실 노동은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게 하고, 노동은 인간의 발달을 돕는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에게는 성성(成聖)의 수단이기도 하다. 일찌기 교황 비오 12세는 그의 회칙(回勅)에서 “예수 자신, 가정의 비호 아래 사셨을 때 양부의 가게에서 목수노릇을 하였고, 천주의 땀으로써 인간 노동을 성화하려 하셨다”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노동계의 현장은 어떠한가?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30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42조)에서 상당한 모순을 스스로 범하고 있다. 내용인즉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시간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날은 8시간이 넘게, 또 어떤 주간에는 48시간이 넘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지난 1980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인간이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그리되어도 된다는 말인가! 거기다가 합의만 되면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기준시간 이상의 근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그리고 작업량 부족으로 될 때는 휴업수당이 주어졌다. 이러한 조항들은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할 우리 교회인이나, 그리스도인 기업인의 회사에는 문제가 없는지 자성(自省)해야 한다. 지난 번 신문보도처럼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로 책임자 수녀가 임진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그러한 일은 우리 모두의 수치다.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자.

## 숲 정 이 산책



우리의 정성을 모으시다.

□전례 해설

### 3월은 성요셉 성월

3월은 교회에서 요셉성인을 특별히 공경하는 달이다. 우리는 흔히 요셉성인을 성모 마리아의 정배시오 예수를 기르신 양부로서 하느님의 특별한 간택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정도로 알고 있다. 복음서도 요셉성인에 대하여 매우 짧게 전해주고 있다.

요셉성인은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목수일을 직업으로 의적으로는 극히 평범한 생애를 보낸 분이셨으나 그분은 의롭고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며 만사에 인내로우셨고 정결한 심신과 참된 겸손으로 끊임없이 하느님께 마음을 향하는 분이셨다. 특별히 하느님께서 이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요셉성인의 중대한 역할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마리아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모친으로 선정하실 때 이미 요셉을 마리아의 정배로 간택하셨다. 하느님께서서는 요셉성인을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마리아가 예수 아기를 낳게 되었을 때 마리아를 간음죄인으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죽일 위협에서 구하시고 동시에 마리아의 명예를 보호해 주시려 하셨다. 다음에는 에집트 피난 때의 어려움 중에 반려자로서 마리아의 근심과 괴로움을 나눌 위로자를 삼으실 계획과 예수와 성모님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과 대외적인 책임을 맡겨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구속사업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성모님을 협력자로 삼으셨음 같이 요셉성인도 성모님 다음으로 구속사업의 협력자가 되셨다.

요셉성인은 노동자의 모범이시고 가난한 이의 벗이며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의 위로자이다. 그분은 맡겨진 일에 귀찮음 가리지 않고 다만 감사와 헌신적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셨고 작은 일들을 통해 어떻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깊은 신앙으로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고 「왜, 만약, 하지만」 등의 복잡한 조건을 내세우거나 버티는 일 없이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용감하게 따라 나서는 위탁의 정신을 보여 주셨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살으실 때에 항상 요셉성인의 말씀을 즐겨 따르셨음을 생각할 때 성요셉 성월동안 그분의 덕행을 본받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그분의 전구를 구해야 하겠다.

또한 요셉성인은 예수와 성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복된 죽음을 맞이하셨기에 임종의 주보성인으로 공경을 받는다. 모든 임종자들이 선종할 수 있도록 요셉성인의 도우심을 청하도록 하자.

### 40일의 의미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四旬節)의 그 40일은 무슨 뜻인가?

성경에 나타나는 40일은 그 당시 관례에 따라 성스러운 사건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40일을 생각하게 된다.

구약시대 노아의 홍수 때도 40일간 온통 비를 내리게 하신 사건(창세기 7, 8~8, 6 참조)을 생각해 보자. 세상을 정화하여 참구원으로 행하는 하느님의 뜻이 40일간 홍수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귀중한 인류의 열 가지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산에서 준비하였다. 「모세는 구름을 뚫고 산으로 올라가 사십 주야를 그 산에서 지냈다」(출애굽기 24, 16).

엘리아 예언자도 호렘산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천사가 주는 음식으로 40일을 보냈다(1열왕기 19, 7~8).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은 인류구원이란 막중한 사업을 앞에 두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사십일간 광야에서 단식하였다(루가 4, 1~13).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천상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 또다시 세상에서 40일간을 준비하셨다(사도행전 1, 3).

이와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40일은 언제나 중대한 사건과 연결된다. 여기서 40일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 40일간의 속죄보속, 참회, 희생을 통해서 승리의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의 일수는 46일이다. 46일중에 주일이 6개 끼어있다. 주일은 원칙적으로 보속 희생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 6일은 사순절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단식할 수 없다」(마르코 2, 19).

### 오늘은 200주년


### 기념 주일입니다


200주년 기념을 위해 계획된 모든 사업은 우리의 기도와 정성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0주년 기념 정신을 가지고 특별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으도록 합시다.


2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의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 교황성하 한국 방문 -한국 순교 복자 103위 시성식
- 200주년 전국 기념대회 -전국 사목회의
- 시복 시성 추진사업
- 맹인 무료 개안 수술
- 북한 선교 사업 등입니다.


####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버킹 걸** 로가디스 소사이머티

 **위크 앤드** 간 이 북


 **NEW MAN**

 **런던 포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첼린저** 주니어북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4451 주인 유 율리안나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설치한

**보안당**  **센타에서는**

원하시는 안경으로 피로한 눈을 밝고, 편하고, 시원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가볍고, 얇고, 원근조절 렌즈, 김 안서리는 렌즈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구역전 오거리 전화 ③ 3032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 순 절 대 강 연 회

— 때 : 17일(토) 오후 7시 30분  
— 곳 : 전주 중앙성당  
— 주제 : 시대적 징표와 우리의 과제  
(최 기복 신부님)

□ 감사합니다

이리 해화학교에 담요 보내기 운동은 많은 분들의 참여로 좋은 결실을 맺었기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사목국 사회복지 사목부에서는 이리 장인동 신부님과 수녀님을 통하여 담요 78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전동 : 성가정회-8,000원, 익명 8명-100,000원, 중앙 : 익명 5명-116,000원, 복자 : 린첸시오회-80,000원, 익명 2명-16,000원, 담요 1장, 덕진 : 순결하신 어머니-8,000원  
수류 : 익명 4명-8,000원, 담요 3장, 부안 : 익명 1명-8,000원, 주현동 : 익명 1명-10,000원, 영등동 : 익명 1명-20,000원, 월명동 : 성모회-50,000원, 익명 1명-80,000원  
기타 : 익명 6명-76,000원, 담요 1장, 계 : 580,000원, 담요-6장

※ 한편 사회복지 사목부 사랑의 손길을 위해 익명의 은인들로부터 150,000원(1월 22일, 2월 20일)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꾸리아 단장 연수회의

전주교구 파티마의 모후 꼬미씨움(지도신부-김 치삼 신부, 단장-채 수현)에서는 꾸리아 단장 연수회를 다음과 같이 갖는다.

때 : 3월 18일(주일)    곳 : 서울 서강대 실내체육관  
전주 출발 시간 : 18일 오전 5시    전주 출발 장소 : 전동성당  
참가범위 : 각 꾸리아 단장 1명, 직속 Pr단장 1명  
참 가 비 : 6,000원(꾸리아 부담)  
준 비 물 : 도시락, 음료수, 필기도구, 성경책, 공동체 성가집  
※ 참석자 명단을 10일까지 제출 바람  
※ 3월 꼬미씨움 회의는 버스 속에서 있음

□ 이 수현 신부님 귀국, 소 순형 신부님 휴양

독일 Mainz에서 4년동안 교포사목을 하셨던 이 수현 신부님께서 지난 3월 1일 귀국 하셔서 주현동 본당에 부임하셨다. 한편 주현동 주임신부로 계셨던 소순형 신부님께서 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리 해바라기 농장에서 휴양하시게 된다.

소 순형 신부님 주소 : 이리시 삼성동 산 180 해바라기 농장    전화 : ☎ 5569

□ 사순절에 얻을 수 있는 책들

- \* 수난과 부활의 신비    G. 알베리오네/표 동자 950원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신비를 성서를 중심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 \* 주여 당신 증은 들나이다    M. 헬트센스/최 익철 1,100원  
교회의 전례력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 \* 거짓없는 기도    W. 브레오/표 동자 900원  
매일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끊임없이 하느님께 아뢰면서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려는 평범한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름답다.
- \* 주님과 함께    박 병래 750원  
명상적, 신학적, 성서적인 묵상을 토대로 한 새로운 형식의 십자가의 길

요심이(553) 김병오



마기환 안과

원장 : 전문의 마기환  
장소 : 팔달로변 불새다방 2층  
전 화 75-2203  
한 남희(비리시타)  
개업 : 3월 17일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진(토마스모어)  
이영의(부리포니아)

<정성과 봉사>

금, 은, 보석, 시계

금진당

전주백화점 1층 52호

☎ ☎ 5506

정 논 지 노

\*마이크 앰프시설 전문  
VTR, 냉장고, 칼라  
TV, 세탁기, 녹음기,  
전자렌지  
공장도 가격 판매 개시  
금성팩토링 체인점  
백운전자  
백니노·이테레사  
☎ 3-0231  
우신히텔-시민약국 중간

□마춤·대여□

신부의 집

\*웨딩드레스·연주복·  
비디오촬영·페백의상·  
신부부케·야외촬영  
관동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 ☎ 6951  
정인기(논지노)

귀가 어두우신 분에게  
보청기를 권합니다

동남의료과학상사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바로서원 옆)  
☎ 3-6900·72-6522  
김낙균(요셉)



☆ 축! 겹진 : 내야 분당 (18일)

1. 행복한 가정운동 분당지도자 양성 세미나 : 14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각 분당 2명씩, 참가비-없음, 지참물-기도서·성가책
2. 성서교육 봉사자 연수회 : 17일 오후 2시~18일, 장소-가톨릭 센터  
강사-양 요섭 신부(성서학 박사), 참가비-7천원
3. 제2기 결혼 강좌 : 17일 오후 7시~9시, 장소-센터 3층, 대상-미혼남녀(기혼자도 가함), 수강료-3천원
4. M.E 소개 모임 : 17일 오후 3시, 장소-가톨릭센터, M.E 5차 재모임 : 17일 오후 4시, 장소-가톨릭센터
5. 장애자(하나회) 모임 : 18일, 장소-가톨릭 센터 교육관
6. 군·육지구 배소라성서 : 매주 목, 낮반-오후 2시~4시, 밤반-7시30분~9시30분, 장소-둔율동 성당, 희망자는 각 분당 사무실에 접수 바람

(중양)

전화 ①711~3

주임 신부	문정현	현문철
보좌 신부	안철현	
사도 회장	김인협	

1. 사순절 특별강연회  
3월 10일 : 한국 천주교회사의 재조명-김진소 신부  
17일 : 시대적 징표와 우리의 과제-최기복 신부  
24일 : 오소서, 주 예수여-이병호 신부  
31일 : 200주년과 평신도상-문정현 신부  
4월 7일 :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김중홍 신부  
14일 : 200주년의 의미와 과제-이완영 수녀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30분, 장소-중앙성당
  2. 분당 올드레아 : 18일(일요일) 공식미사 후  
회비-3천원, 길잡이 지참
  3. 예비자 집중교리(부활반) : 8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30분(선택), 일요일 9시
  4. 대학생회 신입생 모집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5. 중학교 교리반 : 학생미사 후, 강당
  6. 벽돌봉헌 : 9,526장
  7. 성전 신축헌금 신입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1만원-노길래·정은숙·김금옥·장순례·임옥선·김동선·유만래·정민화·서정기, 3만원-곽순년, 2만원-김순기, 5천원-박순례·봉영숙, 10만원-김수덕, 5만원-이소진·정경순·송길진·유정자·이은우·서학선·오인용, 2만5천원-김미진, 1만2천원-임춘호
- 지난주 봉헌금 : 973,401원 교무금 : 842,000원  
특별헌금 : 유요한 감사헌금(3만원)

5. 직장여성 「만나회」 모임 : 14일 7시30분(사도회의실)
  6. 금주 분당청소 : 반석회·까리마스 자모회-17일 오후 2시
  7. 동산교회 미사 봉헌 : 금주부터 9시
  8. 화단에 꽃피어 정원수 기증 바람 : 단채별로 1일 봉사 계획 수립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539,600원 교무금 : 480,00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김성원

1. 우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2. 성우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자모회 : 12일, 어머니미사 후
  4. 성시간 : 16일 저녁 7시, 금주
  5. 200주년 헌금 : 오늘
  6. 사순절 대강연회 : 17일 저녁 7시30분, 중앙성당  
강사-최기복(인천교구 사목국장)
  7. 반회장 회의 : 15일 저녁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바람
  8. 금주전례 : 해설-황만금, 독서-①천 건 ②김인식 차주전례 : 해설-최정순, 독서-①이상기 ②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 122,570원 교무금 : 592,97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주·유 ④9567	사도 회장 김수겸

1. 성모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신 영세자 모임(83년 10월) : 13일 오후 7시30분(성당에서)
  3. M.E(참부모가 되는 길) : 오늘 오전 11시~오후 5시
  4. M.B.W 묵상회 : 12일~17일
  5. 십자가의 길 : 사순절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6. 200주년 기념주일 : 오늘 특별헌금 있음
  7. 금주전례 : 해설-이철수, 독서-이귀례·송숙자  
기도-이귀례·송숙자  
차주전례 : 해설-이철수, 독서-정주복·허옥순  
기도-정주복·허옥순
- 지난주 봉헌금 : 217,850원 교무금 : 389,700원

(전동)

전화

신부 ⑥208	주임 신부	김치삼
사무 ③3222	보좌 신부	박찬길
수녀 ⑧8347	사도 회장	김병오

- ※ 오늘은 2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 자모회·장우회 : 공식미사 후
  2. 성마리아 우리아 : 오늘 오후 2시
  3. 성화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꼬미시움 : 다음주 오후 2시
  5. 교무금 신입바랍니다
  6. 십자가의 길 : 사순절동안 매 금요일 저녁미사 후
  7. 미사시간 변경 안내 : 아침미사-6시, 학생미사-8시30분, 공식미사-10시, 어린이미사-오후 3시, 저녁미사-7시30분 ※ 12일부터 변경됩니다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우, 독서-①최병례 ②이주영  
공식미사 : 해설-서정옥, 독서-①유기동 ②백종훈  
저녁미사 : 해설-고옥희, 독서-①김희진 ②최종만
- 지난주 봉헌금 : 900,950원 교무금 : 1,019,000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주임 신부	김용태
주·사 ②7032	보좌 신부 나훈철
	사도 회장 이홍재

1. 십자가의 길 봉헌 : 사순절동안 미사후에 십자가의 길 봉헌함시다
  2. 가정방문 실시 : 13일-중노1가 1·2구역, 14일-중노1가 3·4구역, 15일-중노1가 5·6구역, 16일-중노2가 1·2구역, 해당구역의 각 가정에서는 대비하세요
  3. 우리아 회의 : 오늘 오후 2시, 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미사시간 임시변경 : 가정방문 관계로 13일부터 오후 미사는 없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미사는 제외)
  5. 건축설계위원회 및 건축행사 위원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위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6. 청년회 모임 : ①성서 모임-오늘 오후 5시 ②성가대 모임-오늘 오후 7시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93,910원, 아파트-114,600원  
교무금 : 243,000원, 아파트-88,000원

(덕진)

전화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사순절 선행목표 설정 : 분당 사도회  
①노력봉사-화단정리·청소, ②회생과 자선-에덕성금·에형사업 참여 ③성소개방-성직자 수도자를 위한 기도, ④200주년을 위한 기도와 봉헌 ⑤관공성사 적극 참여
2. 사순절 분당 심심행사 안내  
①치명자산 미사-매일 새벽 6시 봉헌(주일 제외)  
사순기간중 분당 새벽미사 없음  
②성시간(말씀의 전례)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③십자가의 길 기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저녁미사 없음)
3. 오늘의 모임 : 청년연합회 단합대회(9시 미사후)  
L.M 우리아(2차 유치원)
4. 재경분과 위원회 모임 : 16일 7시30분(사도회의실)